

연말 분위기, 사라졌다...광주 도심 변화가 '설렁'

연말연시 방역 대책 추진...거리 판촉 실종에 인파 '뚝'

"일자리 위태" "잠시 가게 문 닫겠다"...상가엔 직격탄

일부 술집선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놓고 승강이

"이맘때면 들뜨고 활기찬 연말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느끼기 어렵네요."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000여 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날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엔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됐다.

유흥시설 5중(유흥주점, 플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운영 자체가 금지된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해마다 연말이면 인파가 붐비던 도심 중심지지만,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활인 전단지 돌리며 판촉 활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도, 소풍·외식을 즐기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려

웠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은 '입대 문외'와 '5인 이상 입장금지' 안내문 등이 나붙은 상점가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김모(35)씨는 "올해는 연말 모임을 모두 취소했다. 연말 기분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엄중한 시기인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인구 급감으로 지역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 식당은 실내 66㎡(20평) 남짓한 공간에 손님 5명이 드문드문 자리를 채웠다.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매출이 이미 반토막 났는데, 단체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했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후 8시계 동구 구시

청사거리 주변 변화기도 평소와 비교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유흥주점·클럽 등이 준비한 변화가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은 6~7명에 불과했다. 어느 술집 창가에 달린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 장식도 무색할 정도였다.

예년처럼 산타 차림을 한 술집 직원이 행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요란한 호객 행위도 없었다. 최근 개업한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술집은 손님 발길이 끊겨 '개점 휴업' 상태였다.

술집 내부를 소독하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특수엔 하루 평균 매출이 360만 원이었다. 어제(24일) 매출은 13만 원에 그쳤다"고 한숨을 쉬었다.

식당 주인 한모(43)씨는 "명부 작성, 식탁 수습이기에 이어, 연말엔 단체 손님 제한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며 "손님이 없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간대 인접한 동구 동명동 변화가에선 5인 이상 단체 손님 입장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놓고 식당 관계자와 손님 간 사소한 승강이도 벌어졌다.

한 술집 종업원이 5명 이상 입장을 제한하자, 어느 손님은 "다른 곳은 테이블 쪼개서 앉게 하던데요?"라며 통명스레 되물었다.



26일 오후 광주 동구의 음식점 앞에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이들 일행은 다른 술집에 전화를 돌려보며 단체 손님 입장 허용 여부를 확인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종업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민 김모(21·여)씨는 "5명이 함께 와도 2명, 3명씩 나눠 앉으면 방역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술집에서 일하는 박모(30)씨는 "연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손님을 돌려보내기가 어렵다. 단체 손님이 올 경우 일행은 4명 이하로 나눠 서로 떨어져 앉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봉우기자

'손석희 협박' 채용청탁한 전직 기자...징역 6개월 확정

1·2심, 징역 6월... "협박한 것 인정"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역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JTBC 채용을 청탁하고 합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기자였던 김씨는 과거 손 사장에게 제보를 한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김씨가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손 사장에게 채용 청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손 사장에게 연락해 위 사고 내용을 알리며 '손석희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셀럽을 넘는 존재, 도덕성이나 청렴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손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는 'JTBC는 어떻게 뽑느냐'고 물었으며, 이후에도 10차례에

걸쳐 위 사고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JTBC에 채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시비가 붙어 이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김씨는 합의금 2억4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기사화를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공인의 도덕에 관한 사안을 취재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범행 무렵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의 주 진행자로서, JTBC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척도가 되는 인물이었다"라며 "주차장 사건 등이 보도될 경우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손 사장의 명예나 JTBC의 신뢰도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러 "손 사장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김씨를 달래면서 소극적으로만 대응했다"면서 "당시 사회적 지위와 JTBC 내 영향력 등에 비춰볼 때, 주차장 사건 등의 보도 빌미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위축된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으므로 김씨의 협박에 의해 손 사장의 임의의사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씨가 '주차장 사건의 기사거리로서의 가치'를 언급하거나 '10분이면 기사를 쓸 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용씨가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있다고 말한 것은 묵시적으로 해약을 고지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공인의 도덕성이라는 공적 이익과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그것을 무리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는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술김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성적, 공격적 발언' 때문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사소화했다"라며 "협박을 위해 사용했던 '저널리즘의 책임'이나 '기자의 본분'을 운운해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이슬기자

"통치자금 관리 중" 교인 등친 前목사들 실형

실체 없는 과거 정권 통치자금 양성화사업 투자 유도

과거 정권에서 조성한 통치 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교인을 꾀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직 목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A(61)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 교회 담임목사였던 A·B씨는 목사 재직 시절인 2016년 6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99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치 자금들이 구권 화폐와 금과 형태로 특정 지역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러한 통치 자금을 세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교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짓말로 교인을 꾀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직 목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돈다발 또는 금고 옆에서 찍은 사진·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과 채무 변제 비용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 신도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